『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14
pp.289-311. ISSN : 1229-9618

崇文政策과 宋詞의 興盛
- 사대부계층의 확대를 중심으로

정태업*

【목 차】

1. 서론
2. 과거제도의 확대와 사대부 계층의 흥성
3. 송사흥성의 내·외적 요소
4. 과거급제자 통계로 본 사의 흥성
5. 결론

【초록】

송은 과거를 통해 많은 인재를 선발하였다. 과거 선발 인원의 확대는 많은 과거 준비생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새로운 사대부 계층을 형성해 송대 사회의 주역이 되었다. 송 황실은 士大夫들의 宴會나 畜妓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취하였고 이는 사대부와 歌妓의 만남을 촉진시켰다. 만남에는 歌妓의 노래와 연주가 있었고 여기에 맞춘 塡詞의 풍조를 탄생시켰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의 창작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숭문정책으로 과거급제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늘어난 진사급제자 숫자만큼 같은 시기 사 작품의 숫자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송사의 대표작가 30명을 분석해보면 사가 흥성한 북송시기 사인이 17명이다. 그 중 진사출신이 13명으로 76프로를 차지한다. 인구에 회자되는『宋詞三百首』를 분석해 보아도 북송시기 진사출신 詞人이 60프로에 달한다. 즉 송사는 숭문정책으로 인한 사대부계층의 확대와 그에 따른 도시문화, 음악문화, 歌妓문화가 어우러져 흥성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宋詞, 崇文政策, 士大夫, 進士, 科擧制度, 歌妓文化

* 정태업,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pufs1@bufs.ac.kr)

1. 서론

王國維는 '무릇 한 시대에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이 있다[1]'고 하였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은 그 문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이 있다. 詞는 송대를 대표하는 문학이지만 건국 후 반세기 동안 침체기를 가졌다.『全宋詞』를 분석하면 송초 50년 동안 15명의 작가 46수의 작품만이 전해진다. 이는 사가 송대 초기 얼마나 침체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송초 사가 침체한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담론이 있었다. 송을 건국하면서 남방문화와 문인들에 대한 배척[2]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면서 儒家主義적 사회기풍을 만들려고 불건전한 전대의 문화를 금지시켰다[3]는 견해도 있다. 또 북송초기 도시운영 방식이 주택지와 상업지를 구분하여 아침에 성문을 열고 저녁에 성문을 닫는 坊市制 형태를 취했기에 밤 문화나 歌妓문화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4]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송초에 사가 침체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침체했던 사가 어떤 연유로 다시 송대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흥성하게 된 것일까? 송사의 흥성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송사의 발전은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문화의 흥성에서 찾는다.[5]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시문화 속에서 탄생된 酒樓와 歌妓文化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6] 즉 사대부 계층의 향유적 생활문화가 사를 흥성시켰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의 발전과정에서 좀 더 본질적이고 객관적 측면에서 분석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는 사가 북송초기의 침묵을 깨고 송을 대표하는 문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송대의 숭문정책이 과거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進士출신 사대부들이 도시문화, 음악문화, 歌妓문화와 결합하여 송사 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객관적 분석을 위해 본고는 송대 각 시기별 진사급제자수와 사 작품의 증가 숫자를 비교해 사대부 계층

---

1) 王國維,『宋元戲曲史序』: "凡一代有一代之文學". 권용호 역주,『宋元戲曲史』,학고방, 2007, p.47.
2) 董希平·劉尊明,「宋初五十年詞壇岑寂探因」,『古典文學知識』, 第6期, 1998, pp.54-59.
3) 諸葛憶兵,「宋初詞壇蕭條探因」,『文學遺産』, 第2期, 2009, pp.141-144.
4) 孫克强,「宋初詞壇沈寂原因新探」,『文學遺産』, 第5期, 2013, pp.59-65.
5) 袁行霈 主編,『中國文學史』,高等教育出版社, 第3卷 에서는 "송왕조는 사대부를 우대하였고 관원들의 봉록과 보너스도 비교적 후하게 해서 궁정과 관료계층의 생활은 호화스럽고 일반 시민도 화미한 풍조를 숭상했다. 번영한 도시생활은 오락을 위한 각종 문예양식을 만들어 내었는데 說話, 雜劇, 그림자극, 傀儡戲, 제궁조 등의 예술이 빠르게 흥성 발전했고 詞도 송대에 가장 관심을 끄는 문학양식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99, p.11.
6) 孫克强,「唐宋詞興盛原因新論」,『社会科學戰線』, 2014, pp.142-152. 曹千里,「宋詞興盛的原因」,『作家』, 2007, pp.26-27.

의 확대와 송사 흥성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2. 과거제도의 확대와 사대부계층의 흥성

宋은 숭문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세워진 왕조였다. 숭문정책은 모든 국가의 통치 집단이 문인들로 채워지는 구조였다. 따라서 송 왕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필요했고 이런 지식인들을 수급하기 위해 송은 과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唐代에도 과거제도가 있었지만 송과 달랐다. 당대에는 禮部에서 주관하는 禮部試를 합격하고 다시 吏部試를 합격해야 관리가 될 수 있었다. 吏部試는 주로 귀족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선발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기도 했다. 또 과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해도 있었고 行卷이나 投卷, 溫卷 등의 방법을 통해 미리 합격자를 선발해 두는 경우도 있었다.[7] 이에 반해 송대에는 과거제도를 정기적으로 시행했고 선발한 합격자들에게는 거의 모두 관직이 주어졌다.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급제하여 立身揚名하고 관료가 될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준비했다. 송 황제 입장에서도 과거제도는 효율적인 통치 방법이었다. 황권을 위협하는 군벌이나 귀족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이 직접 뽑은 인재를 통해 천하를 다스렸기에 科擧만큼 좋은 제도는 없었다. 이런 황권강화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상호 요구에 따라 과거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갔다. 실제로 송대 과거 선발 인원의 증가를 보면 이 제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수급하였는지 알 수 있다. 『宋登科記考』를 보면 북송 太祖(960-975) 재위시절 15차례 시험을 통해 187명의 진사급제자를 배출했다. 매회 선발한 인원이 십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太宗 興國2年(977)에 가서는 한 해 109명을 진사로 선발했다. 이후 매회 진사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백 명 정도 했다. 태종(976-997) 재위 21년간 진사에 합격한 사람은 1487명이었다. 그러다 북송 말년 徽宗(1101-1125) 宣和6년(1124)에는 한번에 805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남송 理宗 寶慶2年(1226) 에는 한번에 987명을 선발해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이런 과거 선발 정책에 맞추어 과거 응시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태조와 태종때

---

7) 行卷이나 溫卷이 어떤 것인가는 여러 역사문헌에 보인다. 趙彦衛『雲麓漫钞』제8권 이르길 "唐之擧人, 先籍當世顯人, 以姓名達之主司, 然後以所業投獻.踰數日又投, 謂之温卷."(中華書局 135쪽) 송나라 王辟之의『渑水燕談錄·雜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国初, 襲唐末士風, 擧子見先達, 先通牋刺, 謂之請見.既與之見, 他日再投啓事, 謂之謝見. 又數日, 再投啓事, 謂之温卷."(中華書局 118-119쪽) 陸游의 시「秋雨書感」구절 "門外久無温卷客, 架中寧有熱官書"에서도 관련 기록이 나와 있으며, 程千帆『唐代進士行卷與文學』3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温卷的作用主要是再度提醒一下受卷的顯人, 請他對自己加以關心和注意." 河北教育出版社, p.28.

貢擧에 참가한 숫자는 몇 천 명에 불과했지만, 眞宗(997-1022)때 이르러서는 첫 貢擧 시험에 참여한 숫자가 2만 명이 되었다. 英宗朝(1063－1067)에는 解試에 응시하는 사람만 42만 명 정도 되었고 남송시대에 가서는 백만 명으로 늘었다.[8)]

과거시험의 확대는 과거 시험을 위한 '讀書'와 시험 과목인 유가 경전에 대해 '學習'열기를 불러 일으켰고 儒家思想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시기 "사람들은 모두 공자와 맹자를 존중하고, 집집마다 유가경전을 낭송하니,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어찌 오늘날처럼 유학자가 많은 적이 있었겠는가?"[9)]라고 감탄할 정도였다. 이런 '讀書'와 '學習'에 대한 사회적 열기는 '讀書人'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다. 宋 真宗의 「勸學文」詩만 보아도 당시 '讀書人'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富家不用買良田	부자 되기 위해 좋은 밭 살 것 없네
書中自有千種粟	책 속에 저절로 천종의 곡식이 있다네
安居不用架高堂	편안히 살자고 높은 집 지을 것 없네
書中自有黃金屋	책속에 저절로 황금집이 있다네
出門莫恨無人隨	외출에 따르는 이 없음을 한탄 말게
書中車馬多如簇	책속에 수레와 말 떨기처럼 많다네
娶妻莫恨無良媒	장가감에 좋은 중매 없음을 한탄 말게
書中有女顔如玉	책속에 여인 있어 얼굴이 옥같이 아름답네
男兒欲遂平生志	사나이로 평생에 뜻 이루고자 한다면
六經勤向窓前讀	창 앞에 육경 펴고 부지런히 읽으시게

이 시는 제3대 眞宗이 쓴 권학시이다. 책 속에 황금집이 있고 책속에 아름다운 미인이 있다(書中自有黃金屋、書中自有顔如玉)는 말이 바로 이 시에서 나왔다. 이렇게 '독서인'으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송대 사회의 보편적 지향점이 되었다. 또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급제한 '독서인'들이 늘어나면서 士大夫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였다. 송 이전까지 통치계층의 중심을 이루던 권문세족이 점차 밀려나고 사대부가 새로운 주류계층으로 자리 잡았다. 宋太祖 建德2年(964) 처음 과거제를 시행할 때 조서를 내려 말하길 "앞으로 내외인사나, 전직이나 현직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관계없이 모두 직접 찾아와 아뢰면 과거에 응하는 것을 허락한다.[10)]"고 하였는데 이는 평

8) 何忠禮, 「科擧制度與宋代文化」, 『歷史硏究』, 1990, 第5期, p.132. 어쩌면 북송이 망하고도 남송이 다시 유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송의 과거제도에 있을 수 있다.

9) 「送王南强赴紹興簽幕四首」: "人人尊孔孟, 家家誦詩書, 未省有宇宙, 孰與今多儒." 陳傅良, 『止齋集』 卷3, 『四庫全書』, 台灣商務印書館, 第1150册, 1983, p.517.

10) "繼今不限內外職官、前資見任、布衣黃衣, 並許詣閤門投牒自薦, 朕當親試焉.", 李燾, 『續資治通鑑長編2』卷5, 中華書局, 1979, pp.119-120.

민들도 적극적으로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조서이다. 이후 송태조 開寶8년(975)에는 "이전에 과거에 오른 자는 세도가 집에서 많이 선발하여 가난한 집안의 길을 막았다. 이제 짐이 몸소 직접 과거시험에서 선발할지 말지의 가부를 챙겨 옛날의 폐단을 개혁하려 한다.[11]"고 하였다. 황실이 과거제도를 주창한 분명한 목적이 잘 나타난다. 이후 송 황제들은 모두 선왕의 지침을 따라 직접 과거시험을 관장하고 인재를 선발하였다. 그 결과 권문세족 자제들의 과거 합격률은 점차 줄어들고 일반 서민 가정에서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실제로 송대 과거 합격자 중 평민출신 비중은 32프로를 넘는다.[12] 송대 과거제도의 확대와 급제자들의 증가는 많은 서민들에게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의 필요성을 낳았다. 원대 趙孟頫는 "송이 과거로 선비를 뽑자 세상에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이는 과거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을 훈계하고, 형은 자제를 가르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과거시험 관련 교과서를 배우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모두 과거시험 담당관에게 맞출 뿐이었다.[13]"고 했다.『容齋隨筆』에서도 "부형된 자로서 자제들이 글공부 하지 않는 것을 질책했으며 어미와 부인된 자들은 자식과 남편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었다.[14]"고 했다. 남송의 주희 또한 "오늘날은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과거시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15]"고 했다.

당시 과거에 합격하면 그 대우도 엄청났다. 趙翼의『二十二史札記』를 보면 "풍요롭게 녹봉을 주었기에, 벼슬을 맡은 자는 다시는 자신과 집안을 위해 걱정하지 않고, 각자 업무에 힘썼다[16]"고 언급하고 있다. 송 태종 때 기록을 보면 "오백여명에게 모두 예물을 하사하고 개보사에서 축하연을 열어 황제가 직접 시 두 장을 써서 하사하였다. 1등 2등과 진사급제자에게는『九經』을 주고 모두에게 監丞, 大理評事, 通判등의 벼슬을 수여했다.[17]" 비단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엄청난 榮譽도 주어졌다. 宋代 田況이 쓴『儒林公議』를 보면 "설사 장병 수십만이 잃어버린 유(幽)땅과 계(蓟)땅을 되찾

---

11) "向者登科名級, 多為勢家所取, 致塞孤寒之路, 甚無謂也. 今朕躬親臨試, 以可否進退, 盡革疇昔之弊矣.", 李燾,『續資治通鑑長編2』卷16, 中華書局, 1979, p.336.

12) "北宋人物1953人中, 有55.12%的人是布衣入士 ; 由于其中有471人事實上没有出身譜系的纪錄, 因此把他们視爲是布衣出身是有問題的. 扣除之後重新計算, 則布衣出身的人應該是32.53%. 可見光依據『宋史』來統計, 是有問題的." 李弘祺,「宋代科擧解額制度的政治及社會意義」,『教育與考试』, 2017, p.42.

13) "宋以科擧取士, 士之欲見用于世者, 不得不繇科擧進. 故父之詔子, 兄之教弟, 自幼至長, 非程文不習, 凡以求合於有司而已." 趙孟頫,『松雪斋集』卷6.

14) "爲父兄者, 以其子與弟不文爲咎; 爲母妻者, 以其子與夫不學爲辱." 洪邁, 『容齋隨筆·四筆』卷五, 上海古籍出版社, 1995, p.666.

15) "居今之世,使孔子復生, 也不免應擧." 朱熹,『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杜, 2002, p.415.

16) 趙翼, "惟其给賜優裕,口故入仕者不復以身家爲慮, 各自勉其治行."『二十二史札記』卷25

17) "凡五百餘人, 皆賜袍笏, 錫宴開寶寺, 帝自為詩二章賜之. 甲、乙第進士及『九經』, 皆授將作監丞、大理評事, 通判諸州, 其餘亦優等授官."『宋史』卷155『選擧志一』, 中華書局, p.3645.

아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와 태묘에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해도 그 영예가 장원급제자에 미치지 못한다."[18]고 하였다. 이런 명예와 높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의 목표가 과거급제 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과거를 준비하는 讀書人과 급제자들은 사대부 계층을 형성하며 사회의 주축이 되었다. 그들의 실질적 권한도 막강했다.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되어 관리가 되면 황제와 함께 국가를 경영했다. 그들은 황제와 함께 국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런 정신이 '천하가 자기의 책임(以天下爲己任)' 이라는 自覺精神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천하의 흥망이 필부에게 책임이 있다(天下興亡, 匹夫有責)'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임했다. 范仲淹의 '천하의 걱정을 먼저 한 후 내 걱정을 하고, 천하 사람들이 다 즐긴 후에 나도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는 유명한 말도 이런 사대부들의 정치적 자각과 위상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다. 사대부와 황제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관념은 왕안석의 「虔州學記」에도 잘 나타나 있다.[19]

> 무릇 士는 民을 기르는 牧民者다. 목민자는 땅의 소재를 알고 있고 저 무지한 자들은 그리고 몰려갈 뿐이다. 그런데 士들이 배웠으면서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행했으면서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찌하나? 그래서 선왕은 정치조직을 두었다. 무릇 정치는 고무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고무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수단이기는 하다. 그러므로 배움이 완성된 자를 발탁하여 卿大夫로 삼는다. 그다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더라도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을 士로 삼는다. 이것이 순 임금이 말한 '채용한다(庸)'는 것이다. 도가 높고 덕이 뛰어난 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록 천자라 할지라도 그를 북쪽에 두고 물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순 임금이 말하는 '받든다(承)'는 것이다.[20]

이런 사대부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참여는 송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모두가 송대 과거제도가 만들어낸 숭문정책에 기인한바가 크다. 사대부들의 정치사상 또한 과거시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유가경전 중심의 과거시험은 그들의 사유를 유교적으로 만들었다. 張希淸의『中國科擧制度通史』에 따르면 송대 과거제도의 특

---

18) "壯元登第, 雖將兵數十萬, 恢復幽薊, 凱歌而還, 獻捷太廟, 其榮亦不能及矣."田况, 『儒林公議』,中華書局, 1985, p.3.

19) 송대 사대부의 정치적 위상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余英時 선생은『朱熹的歷史世界』에서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다. 아래 왕안석의「虔州學記」인용문도 여기서 재인용 했다. 위잉스, 이원석 역,『주희의 역사세계』, 글항아리, p.325.

20) "夫士, 牧民者也. 牧知地之所在, 則彼不知者驅之爾. 然士學而不知, 知而不行, 行而不至, 則奈何？先王於是乎有政矣.夫政非爲勸沮而已也, 然亦所以爲勸沮.故擧其學之成者以爲卿大夫, 其次雖未成而不害其能至者以爲士, 此舜所謂庸之者也. 若夫道隆而德駿者, 又不止此.雖天子, 北面而問焉, 而與之迭爲賓主, 此舜所謂承之者也."「虔州學记」,『臨川文集』卷82

징 가운데 하나가 시험과목과 시험내용을 유교중심의 經世致用 맞추었다는 것이다. 즉 유가사상을 근간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재를 배양 하고자했던 것이다. 貢擧 과목에 있어서 송은 唐과 비교할 때 몇 가지가 달랐는데 가장 핵심은 당대에는 詩文 위주의 시험이었지만 송대에는 시문과 함께 유가경전이 주요 과목을 차지했다. 송초 禮部侍郎에 進士科와 九經, 五經, 三史, 三禮, 三傳 등 유교경전 위주의 諸科를 두었고 仁宗 嘉祐2년(1057)년에는 아예 明經科를 신설했다.[21] 이는 과거시험을 통해 經世致用의 유가경전에 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즉 宋이 儒家 중심적 국가통치를 표방함에 따라 사대부들은 '옛 것을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에 펼칠 수 있어야 한다.(不獨學於古, 必可施於今)'고 여겼다. 여기서 옛것은 바로 육경을 근간으로 유가 성현들의 통치정신이고 이를 배워 당시 정치에 시행하고자 했다. 유가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대부의 적극적 정치적 참여는 송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范仲淹이 주창했던 慶歷新政이나, 왕안석의 신법인 熙寧變法 같은 경우가 유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유가경전의 해석이고 노력이었다.[22] 송대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당쟁들도 사실 사대부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유가 경전에 대한 해석이었고 서로 다른 유가적 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참여의 결과였다. 하지만 적극적 정치참여는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 대립으로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좌천되거나 폄적을 당하면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정신적 울분과 고민을 사대부들은 詞라는 새로운 문학 양식으로 토로했다.

3. 宋詞 흥성의 내·외적 요소

전통적으로 사대부들의 가장 대표적 문학 표현수단은 詩였다. 물론 산문과 같은 다른 표현 수단이 있었지만 詩經 이후로 내려오는 '詩言志'적 전통에 따라 자신의 견

---

21) 張希淸,『中國科擧制度通史· 上冊』, 上海人民出版社, pp.12-14.

22) 畢明良 연구에 따르면 왕안석의 신법은 二帝(堯,舜)와 三代(夏나라 禹王, 商나라 湯王, 周나라 文,武王) 시대로의 회복이었다. 儒家의 王道政治 실현으로 三代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 목적이었다.(畢明良,『王安石政治哲學硏究』, 陝西師範大學, 博士학위논문, 2012.) 閔貴植은 閔貴植은「중국 전통지식인과 정치사회권력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란 논문에서 송대 經世濟民이라는 유가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대부들은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이 잘 살 수 있게 하고 예악을 알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원이라 여기었고 그들이 이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유가적 정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맹자가 말하는 유가적 '道(정치질서)'는 '仁政'으로 귀결되며 송대 士는 仁政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았다.『中蘇硏究』, 제36권 2호, 2012.

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역시 詩였다. 시는 과거시험의 주요 과목이었으며 그 사람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였다. 송대 사대부들은 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의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어떤 때는 자신이 쓴 시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좌천되고 폄적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소동파의 '烏臺詩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는 그만큼 민감하고 비중이 큰 문학표현수단이었다. 따라서 당시 사대부 문인들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心事를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문학형식이 필요했다. 송대 초기에 민간에서 유행하던 음악인 曲子는 이런 문인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문학예술 형태였다. 詞는 민간에서 연주되는 曲調에 歌辭를 넣은 것이라 시와 같은 엄숙성과 정치성이 없었다. 戀情的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당시 사대부 문인들은 '詩言志, 詞緣情'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詩와 詞를 분리시키고 시에 담아내지 못하는 많은 개인적 정감과 감회를 사로 표현했다. 여기에 대해 錢鍾書 선생은『宋詩選注』에서 "사랑, 특히 봉건 예교의 감시 속에서도 눈감아준, 그런 공공연한 사적인 사랑은, 古體詩에서 거의 모두 近體詩로 넘어갔고, 다시 근체시 속의 대부분은 詞로 옮겨갔다."[23] 고 했다. 송초 유명 사인들이 거의 사대부들인데 이들이 쓴 사의 내용이 대부분 서정성이 충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송초 사대부들의 시문과 사를 비교해 보면 같은 작가의 작품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내용적 차이가 나는데 이는 사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24]

실제로 송대 사대부가 사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거나 폄적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당시 사는 정통 문학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어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문학 양식이었고 이런 가볍고 여흥적인 사는 사대부들의 감정을 소회하기 적합했다. 여기에 더불어 황제가 사대부 관료들의 歌妓들과 함께 연회와 음악을 즐기는 것에 대해 관용적 태도도 큰 역할을 했다. 송태조가 신하들에게 '歌妓와 무녀들을 많이 두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천수를 누려라'[25]라고 한 것이 지침이 되어 역대 황제들은 따랐다. 당시 일화를 보면 황제가 사대부들이 宴會와 歌妓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沈括의『夢溪筆談』에 언급된 晏殊의 일화를 살펴보자.

---

23) "愛情, 尤其是在封建禮教眼開眼閉的監視之下, 那種公然走私的愛情, 從古體詩裏差不多全部撤退到近體詩裏, 又從近體詩裏大部分遷移到詞裏." 錢鍾書,『宋詩選注』, 人民文學出版社, 1995, p.8.

24) 실제로 古文運動을 주창했던 歐陽修의「朋黨論」,「豊樂亭記」,「五代史伶官傳序」,「梅聖俞詩集序」등의 작품과 그의 詞「蝶戀花」(庭院深深深幾許),「長相思」(花似伊, 柳似伊),「臨江仙」(柳外輕雷池上雨) 등의 내용과 풍격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이는 당시 사대부들의 사를 어떤 마음으로 창작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25) "多置歌兒舞女, 日飲酒相懽, 以終其天年." 司馬光,『涑水記聞』, 中華書局, 1997, p.12.

(안수가) 관직을 맡게 되었을 때, 천하가 태평했기에, 신하들이 좋은 곳에서 연회를 즐기는 것이 허락되었다. 당시 문관 사대부 신하들은 각기 연회로 모일 때, 市井의 酒樓에 가서 모두들 장막을 쳐 유희를 즐기는 장소로 삼았다. 공은 당시에 매우 가난해서 외출을 할 수 없었기에 형제들과 공부를 했다. 하루는 황제가 태자를 가르치는 동궁관을 선발하는데, 갑자기 궁중에서 황제가 안수에게 이 관직을 하사했다. 재상과 관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다음날 조정에 나아가 들어보니 황제가 말하기 "근래 조정신료들 중에 연회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어 하루 종일 즐긴다고 들었다. 오직 안수만이 문을 걸어 잠그고 형제들과 공부를 하니 이렇게 근신하고 충후한 사람은 동궁관으로 삼을만하다."고 했다. 안수가 직책을 맡아 황제를 대면하니 황제가 그 직책을 맡긴 뜻을 전하였다. 안수는 솔직담백하게 말하기 "신은 연회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난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신이 만약 돈이 있었다면 역시 그리했을 것이나 돈이 없기에 외출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황제는 더욱 그의 성실함을 좋아하게 되고 군주를 섬기는 본심을 알게 되어 날마다 더욱 총애하게 되었다. 인종이 즉위하고 난 후 마침내 크게 (재상)으로 쓰이게 되었다.[26]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사대부 관료들의 연회를 열고 주루에서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수 역시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주루에서 연회를 즐기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도덕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 晏殊의 「山亭柳」[27] 라는 작품에서 歌妓를 묘사하고 '노래하는 이에게(贈歌者)'라고 부제를 통해 歌妓에게 사를 써준 것을 보아도 당시 주루에서 歌妓와 연회를 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송황제가 사대부들의 여흥에 관용적인 태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많은 사대부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북송 초기 많은 사를 창작한 구양수도 그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구양수의 연회에서 歌妓를 위해 사를 쓰게 된 일화를 보자.

전문희(錢惟演)가 후원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한 관기와 구양수가 늦게 도착했다. 질책하자 歌妓가 말하길 '너무 더워서 시원한 당실에 가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

26) 及爲館職時, 天下無事, 許臣寮擇勝燕飮.當時侍從文館士大夫爲燕集, 以至市樓酒肆, 往往皆供帳爲游息之地.公是時貧甚, 不能出, 獨家居, 與昆弟講習.一日選東宮官, 忽自中批除晏殊.執政莫諭所因, 次日進覆, 上諭之曰 : "近聞館閣臣寮, 無不嬉游燕賞, 彌日繼夕.唯殊杜門, 與兄弟讀書.如此謹厚, 正可爲東宮官."公既受命, 得對, 上面諭除授之意, 公語言質野, 則曰 : "臣非不樂燕游者, 直以貧, 無可爲之.臣若有錢, 亦須往, 但無錢不能出耳."上益嘉其誠實, 知事君體, 眷注日深.仁宗朝, 卒至大用. 「晏殊質朴」, 『夢溪筆談全譯』卷9, 巴蜀書社, 1996, pp.136-137.

27) 「山亭柳」(贈歌者) 家住西秦, 賭博藝隨身.花柳上, 斗尖新. 偶學念奴聲調, 有時高 謁行雲. 蜀錦 纏頭無數, 不負辛勤. 數年来往咸京道, 殘杯冷炙漫銷魂. 衷腸事, 托何人？若有知音見采, 不辭遍唱陽春. 一曲當筵落淚, 重掩羅巾.

보니 금비녀가 보이지 않아 찾다가 찾지 못했고 이에 늦었습니다.' 하니 전공이 말하기 '구양공이 너를 위해 사를 한 수 지어 배상하게 하라'고 했다. 구양수는 즉석에서 「臨江仙」사를 지어 읊었다. 좌중은 모두 두드려 박자를 맞추며 歌妓에게 술잔을 가득 채워 구양수에게 주도록 하고 술을 비우게 하여 배상했다.[28]

그 「臨江仙」사의 내용을 보자.

柳外輕雷池上雨,	버들나무 너머 아득히 천둥소리 들리고 연못 위로 비가 내리네.
雨聲滴碎荷聲.	빗소리는 툭툭 떨어지는 연잎 소리.
小樓西角斷虹明.	작은 누각 서편에 걸린 한줄기 무지개.
欄干倚處,	난간에 기대어
待得月華生.	달 떠오르기 기다렸네.

燕子飛來窺畵棟,	문간에 날아온 제비가 내실을 엿 보길래
玉鉤垂下簾旌.	옥고리를 당겨 휘장을 내렸네.
凉波不動簟紋平.	평평한 대자리 위엔 차갑고 잔잔한 물결
水精雙枕,	수정 같은 두 베개 옆에
畔有墮釵橫.	떨어진 비녀가 놓여 있네.

이 일화를 보면 당시 연회의 일반적 모습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를 짓게 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황제가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錢惟演과 같은 大臣이 공식적으로 연회를 개최하고 관료들을 불러 모은 것은 황실의 용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구양수와 歌妓의 다른 일화를 보자.

구양수가 여음(潁州: 지금의 安徽省 阜陽市) 에 한거할 때 한 기녀가 심히 총명하여, 문공(구양수)의 가사를 모두 외우고 있는지라, 연회에서 약속하길 다른 해에 반드시 태수로 다시 오겠다 했다. 수년 후 문공(구양수)이 과연 자신이 말한 것처럼 양주에서 여음으로 이임해 왔는데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업무를 보고 다음날 관리들과 호수에서 黃楊樹를 심고 함께 술을 마시며 「留擷芳亭」 시를 남겨 '버들가지는 이미 봄빛을 다 했는데, 해당화는 내가 늦게 옴을 한탄하는 듯[29]' 이라고 했다.

---

28) 錢世昭『錢氏私志』: "歐陽文忠公任河南推官, 親一妓.時先文僖(錢惟演, 謚文僖)罷政爲西京留守, 梅聖俞、謝希深、尹師魯同在幕下, 惜歐有才無行, 共白于公, 屢微諷之而不恤.一日, 宴于後園, 客集而歐與妓俱不至, 移時方来, 在坐相視以目. 公責妓云 : '未至, 何也 ? '妓云 : '中暑往凉堂睡着, 覺而失金釵, 猶未見'.公曰 : '若得歐陽推官一詞, 當爲汝償.'歐即席云(此詞), 坐皆稱善.遂命妓滿酌賞飲, 而令公庫償釵, 戒歐當少戢." 『全宋筆記』, 第2編, 大象出版社, 2006, pp.65-66.

29) 趙令畤『侯鯖錄』卷一 : 歐公閑居汝陰時, 一妓甚韻, 文公歌詞盡記之.筵上戲約, 他年當来作守.後數年, 公自維揚果移汝陰, 其人已不復見矣. 視事之明日, 飲同官湖上, 種黃楊樹子, 作詩「留擷芳亭」.전

대문호인 소동파와 歌妓와의 일화도 많다. 何薳의『春渚記聞』을 보자.

> 선생(소식)이 黃岡에 있을 때 매번 연회로 모이면 취하여 글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관기들이 시중을 들면, 직접 부채에 글과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李琪라는 營妓가 있었는데 예쁘고 글도 곧 잘 알았다. 동파도 매번 그녀가 시중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동파의 선물을 받지는 못했다. 동파가 汝郡으로 떠나게 되어, 배웅을 할 때 술을 올려 다시 인사하며 비단 수건에 글을 요구했다. 공은 그녀의 시중을 오래 받았으므로 그녀에게 벼루를 갈게 한 후, 먹을 짙게 하여 붓을 들어 큰 글씨로 '동파가 칠년을 황주에 살면서, 어째서 그대(李琪)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나(东坡七歲黃州住, 何事無言及李琪)'하며 붓을 던지고 팔짱을 끼고는 손님과 담소하니 손님이 서로 말하길 '글이 쉬운 것 같고, 또 끝을 맺지 않은 것 같은데 어째서 입니까?' 했다. 다 마칠 때 되어서 李琪가 다시 청하니 동파가 크게 웃으며 말하길 '자꾸 나오는 것을 잊어 버렸소.' 하며 이어서 써 주기를 '마치 서천의 두보처럼, 해당화가 비록 좋아도 시를 남기지 않았네.(恰似西川杜工部, 海棠雖好不留诗.)' 하니 모두들 찬탄하며 다 취하여 돌아갔다.[30]"

이는 소동파와 같은 문인들도 연회를 통해 歌妓들과 빈번히 접촉하며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송대 官衙에는 공식적으로 官妓를 두어서 행사 때 그녀들이 노래와 음악을 담당하게 했다.[31] 관아에 歌妓를 두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개인 집안에도 歌妓를 두게 되어 연회를 열 때 歌妓가 배석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 모든 것이 송 황실의 용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이런 황실의 용인과 배려는 사대부들을 존중하는 숭문정책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북송대에는 발전한 都市文化도 큰 역할을 하였다. 도시가 발전하며 향유문화가 흥성하며 많은 술집이 생겨났다. 歌妓들은 여기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했다.『東京夢華錄』서문에 보면 "노랫가락이 妓院 거리거리에 웃음과 함께 퍼지고, 악기에 따라 연주 소리가 찻집과 술집에 울려 퍼진다(新聲巧笑於柳陌花衢, 按管調弦於茶

체 작품을 보자.「初至潁州西湖」: 平湖十頃碧琉璃, 四面清陰乍合時. 柳絮已將春去遠, 海棠應恨我来遲.啼禽似與游人語, 明月閑撑野艇隨.每到最佳堪樂處, 却思君共把芳卮.

30) 先生在黃日, 每有燕集, 醉墨淋漓, 不惜與人.至於营妓供侍, 扇書帶畵, 亦時有之.有李琪者, 小慧而頗知書札, 坡亦每顧之喜, 終未嘗獲公之賜. 至公移汝郡, 將祖行, 酒酣奉觴再拜, 取領巾乞書.公顧視久之, 令琪磨硯, 墨濃取筆大書云:「東坡七歲黃州住, 何事無言及李琪.」即擲筆袖手, 與客笑談. 坐客相謂:「語似凡易, 又不终篇, 何也?」至撤具, 琪復拜請. 坡大笑曰:「幾忘出場」繼書云:「恰似西川杜工部, 海棠雖好不留詩.」一座擊節, 盡醉而散.「東城事實·营妓比海棠絶句」,『春渚纪闻』卷六, 中華書局, p.90.

31) 鄧之誠『骨董瑣記』:"宋太宗滅北漢, 奪其婦女隨營, 是爲營妓之始.後復設官妓以给事州郡官幕不携眷者, 官妓有身價五千, 五年期滿歸原寮, 本官携去者, 再給二十千, 盖亦取之勾欄也."

坊酒肆)"고 말하고 있다. 이런 酒樓의 주 소비계층은 사대부들이었다. 북송초기 경제적 필요에 의해 흥성하기 시작한 주루는 歌妓와 사대부를 더욱 빈번히 만나게 했다. 이는 새로운 사 흥성의 길을 열었다. 사대부들은 가사를 짓고 歌妓는 노래를 통하며 그 가사를 널리 보급하는 전파자 역할을 했다. 실제로 歌妓와 사대부의 만남이 사의 창작으로 이어졌음은 여러 작품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유영의「木蘭花慢」상편에 '바람 따뜻한데 악기소리 풍부하고 낭랑하니, 만가가 다투어 신성을 연주한다.(風暖繁弦脆,萬家竞奏新聲)'는 구절이나「長壽樂·繁紅嫩綠」에서 '곳곳의 누대와 귀한 집 문자락에서, 신성을 연주하는 소리가 비등하다.(是處樓臺, 朱門院落, 弦管新聲騰沸)'라고 한 것이나, 「玉山枕」의 '배워서 몇 가락 맑은 노래로 신성을 다하니, 술잔 앞에서 다시 가다듬기 좋구나(省教成、幾闋清歌, 盡新聲, 好尊前重理.) 등의 구절은 당시 新聲이 얼마나 유행했는지를 잘 보여준다.[32] 실제로 유영이 어떻게 歌妓와 만나고 사를 지었는지를 묘사한 작품을 보자.

「玉蝴蝶」

誤入平康小巷,	잘못하여 평강의 작은 골목(기루)으로 들어가니,
畵檐深處,	채색 처마 깊숙한 곳에,
珠箔微褰.	주렴이 약간 걷어 올려져 있네.
羅綺叢中,	비단 더미 속에서,
偶認舊識嬋娟.	우연히 전에 알던 여인을 만났다네.
翠眉開、嬌横遠岫,	푸른 눈썹은 먼 곳의 산처럼 아름답고,
綠鬢亹、濃染春烟.	까만 머리는 봄 안개에 젖은 듯하네.
憶情牽.	생각하면 정에 이끌려,
粉墻曾恁,	하얀 담 너머로,
窺宋三年.	송옥을 엿본 지 삼년이었다오.
遷延.	자유롭게,
珊瑚筵上,	귀한 술자리에서,
親持犀管,	직접 붓을 들고,
旋叠香箋.	종이를 폈다네.
要索新詞,	새 사를 구하려고,
殢人含笑立尊前.	졸라대며 미소 머금고 술잔 앞에 섰다네.
接新聲、珠喉漸穩,	신성에 따라 아름다운 목소리 점차 차분해지고,
想舊意、波臉增妍.	옛 정을 생각하여 용모는 아름다움을 더하네.

32) 楊海明著, 宋龍準·柳種睦 共譯,『唐宋詞史』, 新雅社, 1995, p.382.

苦留連.	차마 떠나지 못하는데,
鳳衾鴛枕,	원앙금침 놓였으니,
忍負良天.	좋은날을 저버릴 수 없네.[33]

이 사는 사대부와 歌妓의 만남을 통해 新詞가 창작된 과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설명해 주고 있다. 장선의 사에서도 사대부와 歌妓의 만남을 통해 사가 창작되어 지는 과정을 잘 볼 수 있다. 장선이 항주에 있을 때 관기들을 위해 사를 지어 주었는데 유명한 歌妓 龍靚을 빠뜨려 버렸다. 이에 용정이 먼서 장선에게 시를 쓰니[34] 장선도 「望江南」을 써서 답해 주었다. "청루의 연회에서, 아름다운 그녀가 옥잔에 술을 권하니, 「白雲」곡 가락 강가 달과 가득차고, 하늘 멀리 밤기운 젖어오니, 사람들은 요대 궁전인가 오인하네. 훈훈한 술과 가볍게 상기한 두 볼, 얼굴은 이미 짙은 화장 지웠지만, 붉은 입술 눈 속 매화꽃 보다 더하니. 이 세상 밖 아름다움의 표준인가.(青樓宴, 靚女薦瑤杯. 一曲白雲江月滿, 際天拖練夜潮來. 人物誤瑤臺. 醺醺酒, 拂拂上雙腮. 媚臉已非朱淡粉, 香红全勝雪籠梅. 標格外塵埃.)" 이밖에 장선이 歌妓들을 위해 지은 작품은「雨中花令」(近鬢彩鈿), 「武陵春」(每見韶娘), 「木蘭花」(輕牙低掌)등 실로 많은 歌妓들과 얽힌 일화들이 있다.[35] 유영과 장선은 모두 진사급제 사대부들이었다. 그들은 높은 관직은 하지 않았기에 자주 酒樓를 출입하고 歌妓들과 빈번히 접촉할 수 있었다. 歌妓들과의 잦은 접촉은 그녀들을 위해 많은 사를 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밖에도 송대의 많은 사대부 문인들이 歌妓들과 접촉하면서 아름다운 송사를 창작했다. 李之儀 같은 경우는 歌妓와 접촉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 만 아니라 歌妓와 혼인을 했다. 그녀를 그리워하며 지은 사가 만고에 절창되는「卜算子」(我住長江頭) 작품이다.

사가 사대부들에 의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대중의 음악적 요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송초 민간에서는 속악이 크게 유행하며 여기에 맞는 가사의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런 사회의 음악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대부들은 塡詞를 했다. 송초 대부분의 과거합격자들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자라 서민들의 樂曲에 별 거부감이 없었다. 송초 민간에서 음악을 어떻게 즐겼는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 한수를 보자.

---

33) 楊海明著, 宋龍準·柳種睦 共譯, 『唐宋詞史』, 新雅社, 1995, pp.382-384 작품과 번역 인용

34) "天與群芳千样葩, 獨無顔色不堪夸. 牡丹芍药人題遍, 自分身如鼓子花."

35) 陳師道의『後山詩話』에 보면 "장선은 늙어서 항주에 살았는데 주로 관기들을 위해 사를 많이 지어주었다(張子野老於杭, 多爲官妓作詞)"고 했다.(胡仔, 『苕溪漁隱叢話』卷六十, 世界書局, 2020, p.414.) 또 清代 葉申薌은『本事詞』卷上에서 "장선은 풍류가 있었고, 더욱이 사에 뛰어났는데, 저녁연회 춤추는 자리에서 歌妓들에게 지어준 작품이 절대적으로 많았다(張子野風流 瀟洒, 尤擅歌詞, 燈筵舞席贈妓之作絶多)"고 했다. 唐圭璋, 『詞話叢編』第3冊, 中華書局, 1993, p.2305.

「望海潮」　柳永

東南形勝,	동남의 좋은 고장
三吳都會,	삼오의 도회지
錢塘自古繁華.	전당은 예로부터 번화했거니
煙柳畵橋,	안개서린 버들 숲 돌다리
風簾翠幕,	화려한 문발과 장막
參差十萬人家.	십만의 인가 총총히 들어앉았네.
雲樹繞堤沙,	제방 따라 나무숲 구름 같고
怒濤卷霜雪,	세 찬 파도 물보라 일으키나니
天塹無涯.	아득한 전당강 끝이 없구나
市列珠璣,	시장엔 진주보석 주렁지고
户盈羅綺,	집집마다 화려한 비단 차고 넘치니
竞豪奢.	실로 부화와 사치를 다투는가
重湖疊巘清嘉,	서호의 산봉들 맑고 푸른데
有三秋桂子,	가을 계화향기 그윽히 풍기고
十里荷花.	십리에 연꽃이 붉게 덮였네.
羌管弄晴,	피리소리 맑고
菱歌泛夜,	마름배 노래소리 어둠속에 은은하니
嬉嬉釣叟蓮娃.	고기 잡는 늙은이와 연밥 따는 아가씨도 웃음가득
千騎擁高牙,	화려한 의장기에 기마대 따르고
乘醉聽簫鼓,	거나한 술기운에 피리소리 북소리 들으며
吟賞烟霞.	산수를 감상하니 시가 흘러나오네.
異日圖將好景,	내 훗날 이 경치 종이에 그려
歸去鳳池夸.	조정에 돌아가 자랑하리라.[36]

이 사의 하편에 보면 '피리 불며 노닐고(羌管弄晴)', '마름을 채취하며 노동요를 부르는 모습(菱歌泛夜)', '술을 마시며 피리와 북소리를 듣는 것(乘醉聽簫鼓)', '안개 낀 노을을 감상하며 노래 부르는 것(吟賞烟霞)'등은 당시 서민들의 음악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유영 자신도 그들과 어우러져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은 사대부들에서 곡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가사를 붙이고 즐길 수 있게 했다. 특히 음악에 맞는 아름다운 가사

36) 번역은 호운익 선정주해, 안의운 역,『당송사일백수』, 正宇社, 1988, p.62에 의거했다.

의 부족은 塡詞의 필요성을 높였고 사회적 요구도 컸다. 사대부들은 이런 사회의 음악적 요구에 발맞추어 정제되고 문학성이 높은 塡詞를 했다. 沈义父의『樂府指迷』를 보면 곡에 대한 좋은 가사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 예로 妓樓인 진루초관에서 부르는 가사는 대부분 교방 악공을 따라 해서 시정의 돈벌이 하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다만 그 음률이 별 차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노래 불렀다. 그런데 그 글들을 보면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달을 노래한 것을 비로 말하고 봄을 노래한 것을 가을로 했다.[37]"

이런 가사에 대한 필요성은 자연스레 유명한 사인들을 배출시켰다. 葉梦得의『避暑錄話』의 기록을 보면 "(유영은) 노래 가사를 잘 써서, 교방 악공들이 매번 새로운 곡을 얻게 되면, 반드시 유영의 가사를 구했고, 세상에 내 놓으면 한 시대를 유행했다. (善爲歌辭, 教坊樂工, 每得新腔, 必求永爲辭, 始行於世, 於是聲傳一時.)[38]"고 전한다. 기존의 좋은 곡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 아름다운 가사를 붙이는 것은 문인으로서 너무도 즐거운 일이었다. 송대 초기사가 전통적 완약풍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康震교수는「宋朝美學十講」강연에서 사의 발전 과정을 "송의 문치주의가 문인들을 중시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고 대우 또한 좋아졌다. 그래서 송대 관원들은 대부분 문화적으로 높은 교양을 쌓은 사대부들이었다. 그들이 즐기는 방식은 보통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술 마시며 노래하고, 악곡을 연주하고 무대를 표현하던 것이 사로 발전하였다.[39]"고 보았는데 설득력이 있다.

4. 과거급제자 통계로 본 사의 흥성

사의 흥성이 숭문정책에 기초한 과거제도와 관계있음은 객관적 통계수치로도 알 수 있다. 唐圭璋선생이 編한『全宋詞』에는 2만여 수의 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출신을 알 수 있는 작가가 880명 정도이고 그들의 작품 수는 17,933수 정도다. 다시 880명 작가의 작품 중에서 진사 출신의 작가와 작품 수가 425명 8,439수 정도이고 이

---

37) "如秦樓楚館所歌之詞, 多是教坊樂工及市井做賺人所作, 只緣音律不差, 故多唱之.求其下語用字, 全不可讀. 甚至咏月却說雨, 咏春却說秋." 沈义父,『樂府指迷』,「坊間歌詞之病」,『詞話叢編』第1冊, 中華書局, p.281.

38) 葉梦得,『避暑錄話』,『宋元詞話』, 上海書店出版社, 1999, p.123.

39) 宋代重視文治,也非常器重文人, 文人社会地位高,且待遇優渥, 宋代官員大多是有高度文化修養的士大夫, 他们的娱樂方式通常是輕歌曼舞、淺斟低唱、歌台舞榭, "詞"

는 작가를 알 수 있는 전체 작품 중 반 정도를 차지한다.[40] 이는 실로 엄청난 비중이다. 작가를 알 수 있는 송사 전체 작품 중에서 진사 출신이 쓴 작품이 반 정도를 차지 한다는 것은 사가 사대부 중심의 문학이었음을 증명한다. 송 건국이후 시행된 과거제도는 남송까지 꾸준히 이어지며 점차 그 권위와 지위를 공고히 했고 선발자의 숫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시기 송사 또한 작가와 작품수가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선발자의 확대와 사 작품의 증가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보다 정밀한 고찰을 위해 먼저 송 역대 황제별 進士 선발 인원과 같은 시기 창작된 사 작품 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사대부 계층의 성장과 사 발전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송 황제의 재위기간별 과거 합격자수와 송사의 작품량은 아래와 같다.

<표1> 송 역대 황제별 진사합격자수와 작품 수

황제	기간[41]	진사합격자수		50년간 진사 詞人數	작품수
太祖(960-975)	15	187		(960-1016) 9명	21
太宗(977-992)	15	1487			
眞宗(998-1019)	21	1748			
仁宗(1024-1038)	14	1644	4575	(1017 - 1067) 64명	1077
仁宗(1042-1063)	21	2931			
英宗과 神宗 (1065-1085)	20	2961		(1068 - 1125) 113명	2810
哲宗(1088-1100)	12	2742			
徽宗(1103-1124)	21	5541			
南宋 高宗(1128-1148)	20	2821	4536	(1126 - 1165) 156	3729
高宗(1149-1160)	12	1715			
孝宗(1163-1187)	24	3864		(1166 - 1207) 179	4184
光宗(1190-1194)	5	954			
寧宗(1195-1224)	30	4732			
理宗(1225-1264)	39	7160			
度宗(1265-1274)	9	2307			

(진사)급제자 수의 증가와 송사 작품수의 증가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비례 관계

40) 在籍貫可考的880位宋詞作者中, 可考爲進士的有425人, 約占總人數的一半.(中略)425位進士的詞作量爲8439首, 占880人詞作總量17933首的47.1%.宋詞大約有一半的作品是由進士身份的人創作出來的. 王兆鵬·劉學,「宋詞作者的統計分析」,『文藝研究』, 2003年第6期, p.56.

41) 재위기간 중 과거시험을 시행했던 년도까지를 기간으로 잡았다.

에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송대 숭문정책으로 인한 과거 선발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들이 창작한 송사 작품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송이 건국되고 처음에는 과거시험을 매년 시행하였다. 태조는 재위 15년 동안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과거시험을 치러서 인재를 선발했다. 그러나 진사 선발 인원은 대부분 열 명 내외였다. 태조(960-975) 15년 동안 과거 합격자수는 187명에 불과했다.[42] 태종 때는 처음 2년 동안은 매년 과거를 시행하다 점차 격년이나 3년 간격으로 시행 하면서 선발 인원을 매회 2백명 내외로 늘려 나갔다. 태종(977-992) 15년 시기 과거 합격자수는 1487명이었다. 진종 때는 재위 첫 2년 동안(998-999) 소수로 인원을 선발하다가 이후 대략 2-3년 간격으로 인재들을 선발했다. 진종(998-1019) 21년간 과거합격자수는 1748명이었다. 특이한 점은 매회 선발하는 숫자가 적게는 50명 정도에서 많게는 4백명 정도로 출입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송초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과 필요한 인재의 숫자에 따라 과거를 시행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동시에 이는 과거제도 자체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변동이 많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태조부터 진종까지 대략 60년 정도가 과거에서 소수로 진사 선발을 한 시기인데 이 기간이 詞壇이 침묵을 지킨 반세기와 일치한다. 이후 인종 때에 가서는 처음에는 3년에 한번 과거를 치르다 1030년 이후부터는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과거를 치렀다. 선발 인원도 매회 2백 명 내외에서 점차 늘려서 5백 명 대가 되었다. 인종(1024-1063) 39년간 합격자수는 4572명이었고 그 중 전반기 (1024-1038) 14년간 선발된 숫자가 1644명이고 다시 과거시험이 있은(1042-1063) 21년간 2931명을 선발했다. 인종 시기는 정규적으로 과거를 시행해 매번 3백 명에서 5백 명 내외의 인재를 선발했는데 이는 과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사가 흥성한 시기와 겹치는데 이때부터 유명 사인들이 출현하여 많은 사를 창작했다. 이후 英宗과 神宗 (1065-1085) 20년간 2961명을 진사 선발한다. 다시 哲宗(1088-1100)년간 12년 동안 2742명을 선발하고, 徽宗(1103-1124) 년간 21년 동안 5541명을 선발한다. 남송 高宗에 가서는 초기 20년간 (1128-1148) 2821명을 선발하고 다시 후기 8년 동안 (1149-1157) 1286명을 선발해 도합 4536명을 선발하게 된다. 그 후 효종 대에는 24년 동안 3864명을 선발하게 되고 광종, 영종, 이종, 도종 시기에도 과거 선발 인원은 남송이 패망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렇게 북송시기 진사 선발 인원수의 증가만큼 진사출신 작가와 작품수는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송대를 다시 50년 단위로 나누어 진사출신

42) 『宋登科記考』에 따르면 960년 진사급제자가 19명, 961년 진사11명, 962년 진사 15명, 963년 진사8명, 964년 진사8명, 965년 진사 7명, 966년 진사 6명, 967년 진사 10명, 968년 진사 10명, 969년 진사 7명, 970년 진사 8명, 971년 진사 10명, 972년 진사 11명, 973년 진사26명, 975년 진사31명이다. 傅璇琮 主編,『宋登科記考』, 鳳凰出版傳媒集團, 2009, pp.1-31.

사 작가와 작품 수를 보면 송이 건국되고 초기 50년(960-1016) 동안은 진사출신 사인이 9명이고 작품수도 21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음 50년(1017－1067) 동안은 진사출신 사인이 64명이고 모두 1077수의 작품을 지었다. 다음 50년(1068－1125)은 113명의 작가 2810수의 작품이 창작되었다. 그 후 靖康之變으로 북송이 멸망하기까지(1126－1165) 156명의 작가 3729수의 작품이 창작되었다. 남송대에 가서는 초기 50년(1166－1207) 동안 179명 4184수의 작품이 나온다.[43] 이 숫자는 과거급제자의 증가 숫자와 정확하게 비래한다.

이렇듯 역사적 통계를 통해 볼 때 진사출신 사대부가 사 창작의 주요 계층이었으며 이는 과거제도의 흥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었을 알 수 있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송사의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겠다. 王兆鵬, 劉尊明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2만여 수의 전송사 작품 중 10수 이상의 작품을 쓴 사람이 234명이고 여기에 유명사인 寇准(7수), 范仲淹(5수), 岳飛(3수)를 합치면 모두 237명이 되고 이들이 쓴 작품이 모두 16674수로 전체 작품수의 79프로를 차지한다고 한다.[44] 즉 이들이 송사를 대표하는 사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237인을 다 분석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王兆鵬, 劉尊明은 이들 237명의 작가 중 '전하는 작품 수', '전해지는 작품집 판본의 숫자', '역대사화에서 언급되었던 횟수', '현·당대 연구논문 편수', '역대사선에 수록된 작품 편수', '당대 사선에 수록된 작품 편수' 등 객관적 데이터를 종합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인 30인을 뽑아 순위별로 정리하고 분석했다.[45] 그 30명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1.辛棄疾, 2.蘇軾, 2.周邦彥, 3.姜夔, 4.秦觀, 5.柳永, 6.歐陽修, 7.吳文英, 8.李清照, 9.晏幾道, 10.賀鑄, 11.張炎, 12.陸游, 13.黃庭堅, 14.張先, 15.王沂孫, 16.周密, 17.史達祖, 18.晏殊, 19.劉克莊, 20.張孝祥, 21.高觀國, 22.朱敦儒, 23.蔣捷, 24.晁補之, 25.劉過, 26.張元幹, 27.王安石, 28.陳與義, 29.葉夢得

실제로 이들 30인 작가의 작품 수는 5575수로 237인 작품의 1/3을 차지한다. 30인의 비율이 237명 작가 작품의 1/3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실제로 이

43) 본 논문의 사의 흥성은 북송시기 이루어진 것에 중점을 두고 남송 후기는 자세히 분석하지 않는다.

44) 宋代有姓氏可考的作者爲1493人, 詞作21055首(其中無名氏1569首).如果無名氏的詞作不計, 則1493人, 人均作詞13首.如果我们以略低于此平均數 的存詞10首以上者爲"詞人" 的基本条件, 则宋代詞人有234人, 加上特例寇准(存詞7首)、范仲淹(存詞5首)、岳飛(存詞3首), 共237人.这237人詞作總量爲16674首, 占宋代现存詞作總數的79%.即是說, 現存宋詞2萬余首, 79%是由237人創作的. 王兆鵬·劉尊明,「歷史的選擇——宋代詞人歷史地位的定量分析」,『文學遺産』, 1995, p.51.

45) 王兆鵬·劉尊明,「歷史的選擇——宋代詞人歷史地位的定量分析」,『文學遺産』, 1995, p.50.

들 작가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의미한다. 이들 가운데 진사 출신을 보면 蘇軾, 秦觀, 柳永, 歐陽修, 晏幾道, 陸游, 黃庭堅, 張先, 晏殊, 劉克莊, 張孝祥, 朱敦儒, 蔣捷, 晁補之, 王安石, 陳與義, 葉夢得 17인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한다.[46] 하지만 진사 출신은 아니더라도 사대부의 범위를 확장해 볼 수 있다. 辛棄疾과 같은 문무를 겸비했던 인물이나 周邦彥, 張元幹과 같이 太學출신 사대부, 吳文英, 史達祖, 劉過과 같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대부, 張炎, 王沂孫, 周密과 같이 송말원초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던 문인, 태조 賀皇后의 손자였던 賀鑄 등도 사대부 집단에 넣으면 모두 27명으로 전체의 90프로가 된다. 나머지 세 사람 중 姜夔는 음악가였으며, 李清照는 사대부 문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과거를 칠 수 없는 여성이었고 高觀國은 생애를 알 수 없다. 다시 30인 가운데 송사 흥성 시기인 북송대의 사인을 보면 蘇軾, 周邦彥, 秦觀, 柳永, 歐陽修, 李清照, 晏幾道, 賀鑄, 黃庭堅, 張先, 晏殊, 朱敦儒, 晁補之, 張元幹, 王安石, 陳與義, 葉夢得 17인이다. 이들 중 순수 진사 출신이 13명으로 비율로 보면 76%를 차지한다. 그러나 진사 시험을 볼 수 없었던 李清照나 황족의 외척인 賀鑄를 제외시켜고 과거를 칠 수 있었던 15명을 母數로 잡으면 87%가 진사 출신이다. 북송을 대표하는 사인들 가운데 진사 출신이 87%라는 것은 사가 이들을 통해 흥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사인의 지명도에 따른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이들의 영향력을 절대적이었다. 사가 진사 출신 사대부들에 의해 흥성했다는 것은 또 다른 기준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宋詞三百首』를 보자. 朱孝臧의『송사삼백수』[47]를 보면 87명[48]의 작가 300수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들 작가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황제 趙佶이나 황족[49], 태학 출신 학자, 무장, 음악가, 승려, 여류문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진사급제나 진사하사를 받은 詞人이 45명으로 반 정도를 차지한다. 진사출신 명단을 보면 아래와 같다.

范仲淹, 張先, 晏殊, 歐陽修, 韓縝, 宋祁, 聶冠卿, 柳永, 王安石, 王安國, 晏幾道, 蘇軾, 秦觀, 黃庭堅, 晁元禮, 張 耒, 晁補之, 舒亶, 朱服, 時彥, 李之儀, 葉夢得, 汪藻, 劉

46) 劉克莊과 朱敦儒는 進士를 下賜받았다.
47) 주효장이 1924년 처음 낸『송사삼백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48) 錢惟演, 范仲淹, 張先, 晏殊, 歐陽修, 韓縝, 宋祁, 聶冠卿, 柳永, 王安石, 王安國, 晏幾道, 蘇軾, 秦觀, 黃庭堅 晁元禮, 趙令畤, 張耒, 晁補之, 晁沖之, 舒亶, 朱服, 毛滂, 陳克, 李元膺, 時彥, 李之儀, 周邦彥, 賀鑄, 張元幹, 葉夢得, 汪藻, 劉一止, 趙佶, 韓疇, 李邴, 陳與義, 蔡伸, 周紫芝, 李甲, 万俟詠, 徐伸, 田為, 曹組, 李玉, 廖世美, 呂濱老, 査 荎, 孔夷, 岳飛, 張掄, 程垓, 張孝祥, 韓元吉, 袁去華, 陸淞, 陸游, 陳亮, 范成大, 蔡幼學, 辛棄疾, 姜夔, 章良能, 劉過, 嚴仁, 俞國寶, 張鎡, 史達祖, 劉克莊, 盧祖皋, 潘牥, 陸叡, 蕭泰來, 吳文英, 黃孝邁, 潘希白, 黃公紹, 朱嗣發, 劉辰翁, 周密, 蔣捷, 張炎, 王沂孫, 彭元遜, 姚雲文, 僧揮, 李清照.
49) 趙令畤는 3수의 작품을 싣고 있는데 태조 차남인 趙德昭의 손자이고, 賀鑄는 11수의 작품이 실려 있고 태조 허황후의 손자이다.

一止, 李邴, 陳與義, 蔡伸, 周紫芝, 曹組. 張孝祥, 袁去華, 陸游, 范成大, 蔡幼學, 章良能, 劉克莊, 盧祖皋, 潘牥, 陸叡, 蕭泰來, 潘希白, 黃公紹, 劉辰翁, 蔣捷, 姚雲文

이 진사 출신 45명의 작품 수는 전체 송사삼백수의 딱 절반인 150수이다.[50] 이들 중 사가 흥성하였던 북송시기[51]만 분류해서 보면 49명의 詞人 173수의 작품이 있다. 이 중 진사출신이 29명으로 60프로를 차지한다. 작품 수로 따져보면 29명 103수를 수록하고 있어 역시 북송시기 작품의 60프로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대부의 개념을 확대하여 태학 출신 周邦彥, 張元幹, 송 건국과 함께 입조한 錢惟演, 태조 하황후의 손자인 賀鑄와 태조 차남의 손자였던 趙令畤를 더하면 34명이 되고 작품 수는 143수가 되어 전체 작품의 83프로를 차지한다. 여기다 사가 흥성했던 북송전기 사인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진사 출신이다. 그 작가들과 진사급제 년도를 보자.

晏殊(1005), 聶冠卿(1012), 范仲淹(1015), 宋祁(1024), 歐陽修(1030), 張先(1030), 柳永(1034), 王安石(1042), 韓縝(1042), 晏幾道(1053), 蘇軾(1057), 舒亶(1065), 黃庭堅(1067) 192수, 李之儀(1067), 王安國(1068), 晁元禮(1073), 張 耒(1073), 朱服(1073), 晁補之(1079), 時彥(1079)

사가 흥성하던 초기 대표사인들의 작품수를 보면 晏殊(140수), 歐陽修(242수), 張先(179수), 柳永(213수), 晏幾道(260수), 蘇軾(362수) 등으로 작품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 창작이 보편화되고 활성화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960년 송 건국이후 반세기동안 침묵을 지키던 송사가 이후 백년 동안 폭발적으로 흥성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제도로 인한 사대부 계층의 성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송사가 이들 사대부들에 의해 흥성했다는 것은 그 작가의 출신과 작품수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5.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 것처럼 송 건국 후 반세기 동안 침묵을 지키던 사가 다시 흥성하게 된 것은 송의 숭문정책이 크게 작용했다.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

50) 그러나 앞서 분석한 30인의 대표 작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사정으로 진사 급제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대부 문인이라 분류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수를 계산하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51) 『송사삼백수』에서는 岳飛 이전까지를 북송 시기 작가로 잡았다.

재가 필요했던 송왕조는 과거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충원했다. 과거를 통해 선발된 인재에게는 관직과 함께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 과거급제자에 대한 존중과 우대는 그들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였고 자유로운 창작도 가능하게 했다. 송은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고 도시의 발전에 따라 많은 酒樓가 생겨났다. 빈번히 연회가 열렸고 그곳에는 음악과 춤을 담당하는 歌妓들이 있었다. 사대부들은 당시 사회적 풍상을 이루었던 宴會와 그곳의 歌妓 함께하면서 새로운 사를 창작했다. 더불어 민간에서는 악곡이 크게 성행했는데 악곡에 맞는 가사의 요구가 컸었다. 이런 사회적 요구 맞추어 사대부 문인들은 음악에 맞는 사를 창작하였다. 송대에는 詩言志적 전통에 따라 시의 창작은 신중했던 반면 사는 노래 가락에 가사를 붙이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사의 흥성에 크게 기여했다. 사대부 문인들은 시로 표현하기 힘든 자신의 감회를 사를 통해 나타내며 詩와 詞를 분리시켰다. 사대부들이 사의 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송대 진사 급제자들의 숫자와 같은 시기 사 작품수와 작가의 숫자로 알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북송 초기에는 진사를 극소수로 선발했다. 이 반세기 동안은 사단도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송 건국 반세기후 과거 선발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의 창작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송사를 대표하는 사인 30인의 출신을 보면 진사급제자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송사가 흥성한 북송시대를 살펴보면 작가의 76%가 진사 출신이었다. 작품의 지명도를 기준으로 수록된『송사삼백수』의 작가들을 분석해 보아도 진사 출신은 압도적이다. 전체 작품의 반이 진사출신의 작품이다. 북송만을 따로 고찰해보면 진사출신 작가와 작품 비율이 60프로를 차지했다. 이러한 역사적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송사의 흥성은 진사 출신 사대부들이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숭문정책에 맞추어 도시문화, 음악문화, 歌妓문화의 발달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풍부한 문학적 소양과 감성은 새로운 詞境을 개척하여 사의 내용과 풍격을 새로운 경지로 이끌었다. 사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송의 숭문정책에 기반한 사대부계층의 확대와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참고문헌】

<단행본>
唐圭璋,『全宋詞』, 中華書局, 1995.
_____,『詞話叢編』, 中華書局, 1993.
脫　脫,『宋史』, 中華書局, 1985.
李　燾,『續資治通鑑長編』, 中華書局, 1979.
胡　仔,『苕溪漁隱叢話』, 世界書局, 2020.
何　薳,『春渚記聞』, 中華書局, 1997.
朱　熹,『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杜, 2002.
洪　邁,『容齋隨筆』, 上海古籍出版社, 1995.
餘英時,『朱熹的曆史世界：宋代士大夫政治文化研究』, 三聯書店, 2003.
_____,『士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6.
程千帆,『唐代進士行卷與文學』, 河北教育出版社, 2001.
傅璿琮,『宋登科記考』,鳳凰出版傳媒集團, 2009.
_____,『唐代科舉與文學』, 陝西人民出版社, 1995.
袁行霈,『中國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1999.
王炳熙·徐　勇,『中國科舉制度研究』 河北人民出版社, 2002.
張希清,『中國科舉制度通史』, 上海人民出版社, 2017.
王水照,『宋代文學通論』河南大學出版社, 1997.
楊海明,『唐宋詞史』, 天津古籍出版社, 1998.
諸葛憶兵,『宋代科舉資料長編』, 鳳凰出版社, 2017.
_____,「宋初詞壇蕭條探因」,『文學遺產』, 第2期, 2009.

<논문>
畢明良,『王安石政治哲學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論文, 2012.
何忠禮,「科舉制度與宋代文化」,『曆史研究』, 第5期, 1990,
孫克強,「唐宋詞興盛原因新論」,『社會科學戰線』, 南開大學文學院, 2014.
_____,「宋初詞壇沈寂原因新探」,『文學遺產』, 第5期, 2013.
曹千裏,「宋詞興盛的原因」,『作家』, 2007.
董希平·劉尊明,「宋初五十年詞壇岑寂探因」,『古典文學知識』第6期, 1998.
王兆鵬·劉尊明,「曆史的選擇——宋代詞人曆史地位的定量分析」,『文學遺產』, 1995.
王兆鵬·劉　學,「宋詞作者的統計分析」,『文藝研究』, 2003.
李弘祺,「宋代科舉解額制度的政治及社會意義」,『教育與考試』,2017.
閔貴植,「중국 전통지식인과 정치사회권력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中蘇研究』, 제36권, 201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宋詞, 崇文政策, 士大夫, 進士, 科擧制度, 歌妓
	영문	Ci(詞), Valuing scholars, Scholar-bureaucrat, Imperial examination

Literature Advocating Policy and The Prosperity of Song Dynasty Ci

Jung Tae-Up

Song Dynasty was based on the literature advocating policy and recruited talented individuals through the imperial examination. According to *SongDengKeJiKao*(宋登科記考), there were 187 people who were recruited for Jinshi(進士) through 15exams during the reign of Emperor Taizu (960-975) in the early Northern Song Dynasty. As for the age of Taizong (976-997), the total number for Jinshi was 1487. Later when Huizong (1101-1125) and Xuanhe (1124) ruled, there was an instance when 805 scholars were chosen all at once. There was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cruits. In proportion to this, among the 880 writers whose origins can be known in *QuanSongCi*(全宋詞), 425 are from Jinshi, accounting for about half of the total. The number of their works is 8439, accounting for about half of the 17,933 works by 880 writers. It can be assumed that the creative writings were mainly made by scholars who were preparing for Jinshi. In addition, the popular imperial exams may have triggered the Ci to further develop.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Jinshi recruited in the Northern Song Age and the increase of the works of Ci in order to demonstrate the prosperity of Ci in this period.

저 자	정태업 / 鄭台業 / Jung Tae-Up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10.	심 사 일	2023.12.09.	게재확정일	2023.12.14.